

종합·해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내일 전격회동 관심 집중

야권통합·기득권양보 의견 모을까

10·26 선거 결과 정치권 지각변동 민주당 내부 역학구조도 영향 불가피



SNS 정치참여 또 위력

유명인들 투표 독려 인증샷 릴레이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유명인의 투표 독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있는 투표 인증 샷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함께 "투표를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 바위 앞에서 뒤통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 근대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라는 글을 올려 투표 참여를 유력적으로 독려했다.

10·2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8일 오찬 회동에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과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에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식의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회동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와 호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대로 민주당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핵심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전격 회동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감이 최고조라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10·26 재보선 투표율 45.9% 역대 최고

서울시장 48.6% 순창군수 7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837만4067명 가운데 460만361명이 투표해 48.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올해 4·27 재보선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49.1%보다는 0.5%포인트 낮았지만 작년 7·28 재보선은 평균 투표율 40.5%보다는 8.1%포인트 높았다.

2%), 중구(49.9%), 강남구(49.7%), 종로구(49.5%) 순을 보였다. 42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치러진 10·26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45.9%로, 2000년 동시 재보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자치구·군제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행정낭비와 주민불편·갈등 초래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토론회서 제기

국내 자치구·군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행정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치위원회도 자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내일 심포지엄 개최 이형석 前노대통령 비서관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전남도의회 맥빠진 도정질의

26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전남도의회 도정질의가 현안보다는 겉핥기식, 지역구 민원성 질문 등 맥빠진 질의로 눈총을 샀다.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에 대한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의는 지사와 교육감을 발안대로 불러내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게 들고 마는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F1대회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묻는 질의서를 먼저 배포해 눈길을 모았지만 실제 질의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시대에, 우리나라 자치구·군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광역시와 구·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복지

이중수 연세대 교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기초단체의 광역화와 구·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복지

한편, 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또한, 심포지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현수 들꽃마을 사람들 촌장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es images of 'ENG 방수'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waterproofing for roofs, walls, and basements. Contact information: 062-367-7755.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onnalands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a house in Seohae-dong and a house in Songdo-dong. Contact: 010-3616-8698.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Suwon-gu Commercial Building Sales Specialist). Promotes services for commercial building sales and leasing. Contact: 010-6670-9800.

Advertisement fo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Dawa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ing). Offers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ing services. Contact: 010-4911-4989.